



남산에서 울리는 매미 소리

우리나라에는 12종의 매미가 살고 있으며 남산에서 확인된 매미는 6종입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면 남산에서 털매미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나머지 5종의 매미가 동시다발로 울어 남산이 떠들썩합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울음소리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늦털매미는 한껏 여유를 부리다가 가을 (9월 중순)이 되면 소리를 냅니다.

[말매미]

등치가 크고 울음 소리가 제일 크다



(몸길이 40mm~48mm)

[애매미]

등치가 작고 전국적으로 분포



(몸길이 28mm~35mm)

[유지매미]

날개 전체 불투명 기름 끓는 소리



(몸길이 34mm~36mm)

[참매미]

가장 많이 들리고 (맴맴) 새벽부터 울



(몸길이 33mm~36mm)

[털매미]

몸에 짧은 털이 있다. 여름 매미



(몸길이 20mm~25mm)

[늦털매미]

가을철에 주로 활동. 가을 매미



(몸길이 약 22mm)

남산 매미의 출현 시기

[QR로 소리 들어보세요!]

말매미



애매미



유지매미



참매미



털매미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리
참매미		←→				맴 맴 맴 맴 맴--
애매미		←→				오-쓰 오-쓰 히히히히스 히히히히히히히
말매미		←→				촛르~르~르~ 촛르~르~르~
유지매미		←→				지글지글지글지글~
털매미		←→				찌----- 쓰-----
늦털매미				←→		씨-익 씹씹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맴 맴 맴 맴 맴 ~’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참매미입니다. ‘찌~~~’하고 소리를 길게 내는 털매미. 대화가 힘들 정도로 시끄럽게 우는 말매미. 매미 소리를 글로 표현해 보세요. 똑같은 소리도 듣는 사람마다 달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곤충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나오는 웃음은 자연이 주는 선물~!

글 / 사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